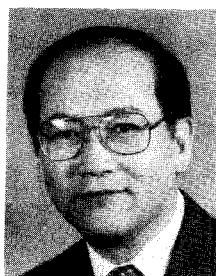


## 한창대 교수 제6회 호암상(공학상) 수상기념 강연회를 마치고



### 한창대

1954~ 서울대학교 화공과(학사)

1958

1961~ 미국 M.I.T 화공과(석사)

1962

1962~ 미국 M.I.T 화공과(박사)

1964

현재 미국 Akron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교수

미국 애크론 대학의 Benjamin Franklin Goodrich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신 한창대 교수님의 제6회 호암상(공학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한 강연회가 본 학회 주관하에 지난 3월 2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존슨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호암상은 공학, 과학 및 의학의 학술관련 세 분야와 예술, 언론 및 사회봉사의 비학술관련 세분야를 합해 총 여섯분야에 걸쳐 국내외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한국인(재외한국인 포함)을 각 분야별로 한분씩 선정해 그 동

안의 업적을 치하하고 학술분야의 경우 학술연구비를 지원해 앞으로 더욱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장려하는 취지로 삼성그룹이 제정한 상으로 올해로 여섯번째의 수상을 맞이하였다. 올해에는 고분자 가공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한창대 교수님이 공학상을 수상하시게 되어 한창대 교수님 개인은 물론이고 같은 학문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본 학회의 회원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다.

강연회는 이서봉 본 학회회장을 비롯하여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자인 허정립 건국대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김상주 호암상 위원의 축사와 세분의 찬조강연에 이어 한창대 교수님의 수상기념강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김은영 KIST원장께서 '출연연구소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이어 김광웅 KIST고분자연구부장께서 '출구압력의 의미와 측정'에 관해 강연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진정일 고려대 교수께서 '새로운 조합형 폴리메르의 구조'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이어 김영우 한국 SRI사장께서 한창대 교수님의 약력을 소개하셨고 곧이어 한창대 교수님이 '블럭 공중합체와 액정고분자의 상전이 및 유변학적 거동'이라는 제목으로 수상기념강연을 하셨다. 한창대 교수님은 강연을 통해 블럭 공중합체와 액정고분자의 상전이 및 유변학적 거동을 분자차원에서 해석한 그 동안의 실험적 및 이론적 연구결과와 향후 연구계획을 말씀하였고 좋은 연구는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만 얻어진다는 충고의 말씀을 하셨다. 강연회에 이어 참석자들을 위한 소연이 개최되어 서로 정담을 나누는 기회도 가졌다.

다시 한번 한창대 교수님의 수상을 축하하며 앞으로 본 학회회원들이 훌륭한 연구결과를 얻고 그에 대해 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김진환〉

